2021 새해 새 설계

송귀근 고흥군수

"소득서 복지까지…'고흥 더하기' 5대 정책 중점 추진"

"살기 좋은 고흥을 만들기 위해 '고흥 더하기' 5대 정책을 중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송귀근 고흥군수는 10일 고흥 더하기는 '소득 더하기', '매력 더하기', '온기 더하기', '활력 더하기', '믿음 더하기' 등이라고 5대 정책을 제시했다.

첫째 '소득 더하기'는 군민의 실질소득을 높이기 위해 군민의 60%가 종사하는 농수축산업을 집중 육성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농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스마트팜 혁신 밸리를 조기에 완공하고 첨단농업 기술을 확대 보급한다. 또 지역에 맞는 새로운 특화작목의 개발과 우량품종의 공급, 농작물의 병해충 사전 예방으로 농가 소득을 늘릴 방침이다.

양식어장 시설의 현대화를 앞당기고 수출주도형 특화품목 육성으로 양식어업을 미래의 성장산업으로 육성하고, 어촌 뉴딜사업과 제4차 도서 종합개발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으로 보다 살기 좋고 활력 넘치는 어촌을 만들 계획이다. 축산업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고흥 한우의 우수혈통 생산기반을 강화하고 가축 유통시설의 현대화사업도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기 완공
관광객 1000만 대비 시설 확충
어르신 돌봄서비스 대폭 강화

추진한다.

특히 고흥 농수축산물의 국내 대형마켓 입점을 늘려가고, 중국·미국 등 글로벌 온·오프라인 유통채널도 확대해 나간다.

'매력 더하기' 정책은 고흥 관광객 1000만명 시대를 열겠다는 계획이다.

우주발사전망대 인근에 모노레일과 스카이 워크를 조성하는 등 관광 시설을 늘리기로 했다. 지역의 역사, 문화, 인물 자원을 활용한 관광 명소화 사업도 추진한다. 고흥 유자석류 축제를 국내 대표 축제로 육성하고, 고흥 대표 음식도 발굴하기로 했다.

촘촘한 복지를 위한 '온기 더하기' 정책도 눈길을 끈다.

2021년 주요 사업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기 완공
▲농수축산물 글로벌 온·오프라인 유통채널 확대
▲고흥 관광객 1000만명 시대 조기 달성
▲촘촘하고 따뜻한 맞춤복지 실현
▲고흥 인구감소율 제로화 도전
▲2022년까지 귀향·귀촌 5000명 유치
▲들녘간담회 등 군민 소통창구 확대

도양 노인건강복지타운을 건립하고 경로당 등 어르신들의 여가시설과 어르신 일자리를 늘려 어르신 돌봄서비스를 강화하기로 했다. 장애인과 여성, 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의 권익향상을 위한 정책도 추진한다. 군민의 의견을 수렴해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군립 추모공원을 건립할 계획이다.

살맛 나는 정주 여건 조성을 위한 '활력 더하기' 정책으로 인구 늘리기에 나선다.

고흥읍 구도심의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노후한 문화 체육시설도 개선하기로 했다. 인구감소율 제로화를 위해 고흥 출신 청년들이 고향에 돌아와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각종 창업시스템 마련, 문화공간 조성 등 다양한 지원책을 편다. 2022년까지 귀향·귀촌 인구 5000명 유치를 위해 귀농귀촌학교를 내실 있게 운영할 계획이다.

군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을 위한 '믿음 더하기' 정책도 추진한다.

군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기 위해 분야별로 군민 초청 간담회와 찾아가는 군민 사랑방, 들녘간담회 소통 창구를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공직자의 친절과 청렴도를 향상하고, 투명하고 효율적인 행정 혁신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가 우대받는 공직사회를 조성할 계획이다.

송 군수는 "올해는 민선 7기 들어 추진한 여러 시책과 사업들이 알차게 열매를 맺고 수확을 해야 하는 해"라며 "모두 힘을 합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행복한 고흥의 문을 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흥=주각중 기자 gjju@kwangju.co.kr

천년 국가제례 지냈던 '지리산 남악사' 옛터 발굴한다

구례군, 고증 거쳐 복원 계획
지리산 노고단 남쪽 당동마을
남악사 옛터 전면 발굴조사

신라와 고려, 조선을 거쳐 천년 넘게 나라의 중요 제례행사를 봉행했던 지리산 남악사 옛터의 발굴 작업을 본격 시작한다.

10일 구례군에 따르면 지리산 노고단 남쪽인 광의면 온당리 당동마을 일원의 남악사터를 전면 발굴 조사해 역사적 실체를 밝힐 예정이다.

구례군은 이를 위해 용역비 1억원을 들여 전문 문화재연구기관에 용역을 맡길 계획이다.

이는 구례군이 지난 1992년 남악사 옛터에 대한 부분적 지표조사를 실시한 지 30년 만에 전면 발굴에 들어가는 것이다.

남악사는 지리산 산신을 제향했던 사당이다. 삼국사기에 따르면 통일신라 시대 나라의 제사 대상이 됐던 오악이 있는데 토함산(동악), 계룡산(서악), 지리산(남악), 태백산(북악), 팔공산(중악)이다.

통일신라 때에는 지리산 천황봉에서, 고려 때에는 노고단에서 제례를 지냈고, 조선에 들어서는 세조 3년(1457)에 노고단 아래 구례군 광의면 온당리 당동에 제단을 세우고 조정에서 제관이 내려와 국가 행사로 제례를 지냈다고 한다.

남악사는 전면 3칸, 측면 1칸반의 전통적 사묘이며 신문, 객사, 유생청 등 부속건물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술국치(1910년 8월29일) 2년 전인 1908년 폐쇄됐으며, 이 때까지 남악사는 조선 왕조의 국가제례 공간이었다.

남악사 폐쇄 이후 56년이 지난 1964년 구례군민의 자율 모임인 구례군번영회가 주축이 돼 화엄사 일주문 앞에서 군민들이 모여 다시 제례를 행했다.

이후 국가의 태평과 국민의 안녕, 풍년을 기원하는 제례를 '지리산 약수제'라 이름 짓고 매년 곡우절(4월20일)에 전남지사가 제관으로 참석해 이어오고 있다. 1982년부터는 구례군민의 날에 제례가 열려 구례의 대표 문화축제로 발전했다.

하지만 지리산 약수제가 지리산에서 생산되는 고로쇠와 거자수 약수를 판매하기 위한 상업적 축제로 비쳐지는 것을 우려해 명칭을 '지리산 남악제'로 변경했다. 현재 제례가 행해지는 남악사는 1969년 12월에 화엄사 일주문 입구 오른쪽에 사당을 지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남악사 옛터 발굴을 통해 국가 제례의 소중한 가치를 정립하고 역사적 고증을 거쳐 향후 구체적인 복원사업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김 군수는 또 "지리산 남악제 제례 행사의 국가중요무형문화재 지정해 국가 행사로 치뤄질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협의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리산 남악제 제례행사를 주관하고 있는 구례향교 김한섭 전교는 "남악제는 조정에서 임금의 명을 받은 관리가 내려와 제례를 올린 국가 중요 행사였다"면서 "일제에 의해 헐린 남악사의 복원은 민족정기를 바로잡고 역사와 전통을 이어가는 중대한 일"이라고 말했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

1969년 12월 구례 화엄사 일주문 입구 오른쪽에 건립, 현재 제례를 봉행하는 남악사. 전남도문화재 제36호로 지정됐다. 〈구례군 제공〉

광양항 3-1 컨테이너부두 24시간 운영 돌입

야간에도 작업 생산성 향상 기대

여수광양항만공사는 광양항 컨테이너부두가 24시간 운영에 들어갔다고 11일 밝혔다.

광양항에는 컨테이너 부두 2곳(2-2단계·3-1단계)이 운영 중인데 광양항서부컨테이너터미널(GWCT)이 운영하는 3-1단계 컨테이너 부두가 24시간 운영한다.

광양항서부컨테이너터미널은 최근 통합한 SM상선광양터미널(SMGT)의 인력을 승계해 교육 등 1개월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24시간 운영에 들어갔다.

화물 반·출입이 어려웠던 점심시간과 야간에도 하역 작업을 할 수 있어 상하차 시간 단축 등 항만 생산성이 좋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새얼굴

"농업기반시설 보강·확충에 역량 집중"

임문희 농어촌공사 고흥지사장

"총 260억원을 투입해 농업기반시설을 보강·확충, 고흥지역의 농어업 발전 기반을 다지겠습니다."

최근 한국농어촌공사 제13대 고흥지사장에 취임한 임문희(52) 지사장은 11일 "믿음·화합의 조직문화와 청렴윤리경영을 통해 자율과 책임 정신으로 지사를 이끌겠다"면서 "고흥지역 농어촌 발전을 위해 생산기반 조성사업에 80억원, 농업구조 개선사업에 100억원, 농업기반 시설관리에 20억원, 지역개발사업에 60억원 등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남 출생인 임 지사장은 조선대학교와 한양대 농촌개발 전문가과정을 수료했다. 1995년 한국농어촌공사에 입사해 에너지기획부장, 순천광양여수지사 수자원관리부장 등을 역임했다.

/고흥=주각중 기자 gjju@kwangju.co.kr

광주문화신협

든든한 금융의 힘으로
따뜻한 협동의 힘으로
평생어부바 신협

조합원님과 함께한
광주문화신협 창립 27주년
광주대표 서민금융 협동조합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아파트담보대출
아파트 감정시세
최고 70~80%
추가신용대출 상담가능

담보대출
시세 80%까지 법인 100억 / 개인 50억 가능
각종 부동산담보(아파트, 주택, 상가, 빌딩, 대지, 전·답, 임야 등) 및 신축자금(시설자금) 등

상생협력대출금
사회적 경제기업
대출금리 2.28%
대출대상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정부보증 햇살론대출
근로자 최대 1,500만원
(근로자 금액한도 기존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확대지원)
자영업자 최대 2,000만원

광주문화신협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연신로 91번길 20-4
cu08171@cu.co.kr 1644-7990

문흥본점 266-4150
양산지점 573-4150
운암지점 528-4150
매곡지점 572-4150
첨단지점 576-4150
운암산지점 513-4150
동광주지점 264-4150